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Breast Self-Examination)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태영숙, 김성진*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센텀병원*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about Breast Self-Examination of Clinical Nurses.

Young-Sook Tae, Sung-Jin Kim*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Centum Hospital, Busan, Korea

Abstract

Background/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nurses toward breast self-examination(BSE)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associate compliance with breast self examination.

Method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77 nurses in 8 university hospitals in Pusa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1 to October 20, 2001 by means of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Choi's BSE knowledge scale, Kim's BSE attitude scale and Jung's BSE practice scale. **Resul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pm$ S.D t-test, ANOVA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knowledge for the total sample was 22.94 ± 0.39 . The mean score of attitude for the total sample was 3.44 ± 0.31 . The mean score of practice for the total sample was 7.25 ± 4.62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of BSE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of nurses ($F=6.752$, $P=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 of BSE according to general factors of nurses($P>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ractice of BSE according to age ($F=2.734$, $P=0.044$), and marital status of nurses ($t=-2.598$, $P=0.010$)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of BSE according to exercise for health ($t=2.259$, $P=0.024$), frequency of performance in BSE($F=6.641$, $P=0.000$), confidence in knowledge of BSE technique($F=5.661$, $P=0.000$), confidence in finding breast nodule of nurses($F=7.684$, $P=0.000$).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 of BSE according to BSE relating factors of nurses($P>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ractice of BSE according to exercise for health ($t=2.269$, $P=0.024$), enlisting the help of significant peers($t=3.393$, $P=0.001$), frequency of performance in BSE($F=13.932$, $P=0.000$), confidence in knowledge of BSE technique($F=5.350$, $P=0.000$), confidence in finding breast nodule($F=7.204$, $P=0.000$), asking clients of BSE of nurses($t=3.153$, $P=0.011$).

Conclusio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BSE of nurses was high score, The nurses' attitude about BSE was positive, The level of nurses' self practice of BSE was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urses' educational program for BSE with its focus on associating factors of compliance of BSE.

Key words : nurse, breast self-examination, knowledge, attitude, practi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은 미국의 경우, 폐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의 1위를 나타내고 50대 연령의 여성에게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하며 미국과는 달리 40대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¹⁾ 이에 따라 유방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유방 증상이 있거나, 증상은 없어도 유방암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오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방암으로부터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초기에 있는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는 유방촬영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모든 여성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유방암의 약 90%가 우연히 또는 자가검진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된다.²⁾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유방자가검진(Breast Self-Examination, 이하 BSE 라고도 한다)을 가르치는 것이 의사에 의해 신체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셈이다.

BSE는 직경이 0.3~1.0cm 정도의 작은 몽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으며, 조기발견 방법 중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이다. 매달 유방자가검진을 실시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초기단계에서 종양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³⁾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BSE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고 있지만 규칙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의료인도 BSE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BSE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유방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고도 심하게 아파야 병원에 가는 습성 때문에 유방암이 진전되어서야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것은 아직 BSE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BSE 교육은 실천빈도와 정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간호사는 BSE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SE를 규칙적으로 시행

하도록 자극하기에 이상적이다. 실제로 대중매체나 다른 방법을 통한 것보다 간호사나 의사에게 배운 여성들이 BSE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어떤 연구에 의하면 BSE 교육에 있어서 의사보다 간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⁵⁾ 그러나 간호사 자신들도 BSE를 규칙적이며 정확하게 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자들을 교육하기 이전에 정확한 BSE 방법을 배워야 한다.

BSE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는 그들 자신이 BSE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BSE 방법을 교육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의 BS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방자가검진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유방자가검진

유방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의 유방에서 이상상태를 발견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계로 양쪽 유방과 액와를 규칙적으로 검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암협회와 국립 암연구소의 지침 및 권유사항인 서서하는 육안검사, 누워서하는 촉진검진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1) 지식정도

개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최경옥⁶⁾이 개발한 도구로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3문항,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증상 9문항,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관한 17문항으로 구성된 총 29문항으로 측정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태도정도

인간이 그 환경 속에 있는 사회적 사물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김애리⁷⁾가 개발한 도구 17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로서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지를 평가한 개인의 태도 경향을 의미한다.

(3) 실천정도

개인이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계획대로 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명옥⁸⁾이 개발한 유방자가검진 수행정도를 14개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문헌고찰

1. 유방자가검진

BSE는 유방암 발견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제적이며, 간단하며, 안전하고, 비 침습적이며, 비 방사능 방법으로 자기동기화가 되며 생존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947년 Dr. Popma가 처음 창안하여 1950년 Haagensen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영화, 슬라이드, 팸플렛, 강연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기 시작하였다.⁴⁾

BSE는 유방암 조기발견에 그 기여도가 크므로 미국암협회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매달 유방을 자가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은 3년마다, 40세 이상은 매년 한 번씩 진찰을 받으며 유방 X선 촬영법은 39세까지의 여성은 기본으로 1회 찍어두고, 40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매년, 없는 경우 2년에 한 번씩은 촬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⁴⁾

그러나 실제 BSE는 잘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1980년

미국 서부 여성 중 62% 여성이 BSE를 하고 있었으나 40%만이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연희⁴⁾의 연구에서도 일 지역 여성의 BSE 실행정도는 58%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매달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BSE 실행 정도를 연구한 최경옥⁶⁾의 보고에도 실행정도가 20점 만점에 5.7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실행 빈도도 매달 하는 경우는 11.4%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 여성 뿐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까지도 BSE에 대한 실천을 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BSE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BSE를 하고 있지 않는다. BSE는 행동적 관점에서 습관화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로는 첫째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닦는 것과 같은 습관적인 자기간호행위가 어렵다.⁹⁾ 둘째 BSE를 하도록 자극하는 단서가 많지 않다. 생리를 하는 여성은 매달 월경주기로 BSE를 하도록 암시를 받기도 하지만 생리가 끝난 후에 BSE를 해야 하므로 효과적이지 않다. 셋째 유방자가검진을 하는 것에 특별한 보상이 없다. 검진을 한 결과 유방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안심이 되는 정도이며 유방문제가 발견되면 불안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¹⁰⁾ 넷째 다른 건강행위가 건강증진과 보호 목적인 반면 BSE는 단지 보호 목적으로만 수행한다. 다섯째 BSE는 개인적인 행동이므로 이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¹⁾

Lauver¹²⁾는 BSE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로 BSE 동안에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기 어렵고, 비정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공포를 주거나 저지시킬 수 있으며, 날마다 보다는 매달 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검진화하는 어려움을 꼽고 있다. Shepperd et al¹³⁾와 Hailey et al¹⁴⁾의 연구에서는 잊어버리거나, 절차를 모르거나, 두려움 때문에, 건강이 좋다고 느껴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이 유방암에 걸렸거나 옮겨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들거나, 주치의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천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잊어버림, 지식부족, 시간부족, 몽우리 발견에 대한 두려움, 유방을 만질 때 당황함, 유방검진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함 등이

보고되었으며, 일관성 있게 보고된 것은 자신감 부족과 잊어버림이었다. 유방자가검진을 매달 규칙적으로 하도록 유지하는 전략으로는 엽서, 직접 얼굴을 보고 격려하는 것, 외적 보상을 하는 것, "유방자가검진"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달력에 붙이는 것 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유방자가검진은 유방암을 조기발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실제로 실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

현재까지 암예방과 조기발견의 영역에 있어서 간호사의 잠재적인 기여가 과소평가 되어 왔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만날 때 암예방을 교육하고 암 선별(screening)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가 현재 암예방과 암 조기발견 지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지, 또한 이 영역에서 교육과 screening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¹⁵⁾

Ludwick¹⁶⁾은 23개의 nursing home에 있는 간호사 84명을 대상으로 노인 여성의 유방암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 및 BSE 교육 실천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유방검진과 BSE 교육이 감소되었으며 간호사의 70.6%가 노인 여성에게 유방검진을 하지 않았고 80%는 BSE를 가르치지 않았다. 간호사 자신의 규칙적이고 정확한 검진, 자신감, 기혼, full-time 근무자, 스스로 BSE를 하도록 격려한다고 말한 간호사는 노인여성의 유방을 더욱 많이 검진하였다. 또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시간이 50% 이상일 때, BSE에 대해 자신감이 있을 때, 학사 학위 이상일 때 BSE 교육을 더 잘 하였다.

황복녀¹⁷⁾은 서울 시내에 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477명 전원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자신의 BSE 실천정도, 대상자에게 BSE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지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태도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12점 만점에 7.3점, BSE의 효과에 관한 태도가 6.7점이었다. BSE를 실천하는 군은 27.0%이었고 이중 7.0%만이 매달 실천하였다. 대상자에게 유방암에 대한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5.2%, BSE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이었다. 주위에

유방암 환자가 존재한 경우, 유방암에 대한 민감성과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BSE 실천율과 교육율이 높았다.

Cole와 Gorman¹⁸⁾은 간호사 93명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BSE 실천에 관해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확한 방법으로 매달 BSE하는 사람을 이행자군으로, BSE를 하지만 매달하지 않고 빈도가 적은 사람 또는 매달 BSE를 하지만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 BSE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이행자군으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30.1%가 이행자이었고 비이행자 중 매달 행하나 부정확하게 한 사람은 8.6%, 3-6개월마다 행한 사람은 28.0%, 매 6-9개월마다 행한 사람은 10.8%, 1년에 한번 행하는 사람은 6.4%이었고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16.1%이었다. 이행자군은 비이행자군보다 교육수준이 높았고, 나이가 35세 이하였다.

Sawyer¹⁹⁾은 대도시에서 있는 4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80명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BSE 실천, 입원한 여성 환자들에게 BSE에 관해 질문하는지, 질문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 면담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의 약 50%는 매달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BSE를 하였고 환자에게 BSE에 관해 질문하는 간호사는 36%이었다. 환자에게 질문한 간호사의 약 33%는 환자가 BSE 하는 것을 평가하였으나 환자에게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보고한 간호사는 25% 이하였다. 환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BSE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 환자의 진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바빠서 등이었다. 환자에게 BSE에 관해 질문하는 간호사는 나이, 교육정도, 경력, 지위, 병원의 종류와 관련이 없었으나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BSE를 하는 간호사는 환자에게 BSE에 관해 더 많이 질문하였다.

Clarke, Sandler²⁰⁾은 내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05명을 대상으로 BSE 실천과 BSE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82%가 BSE를 하고 있었으며 이 중 41%는 매달 규칙적으로 실천하였고 92%가 BSE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환자에게 BSE를 교육한 간호사는 40%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80%가 유방암 고위험군과 만나고 있음에도 이들 중 40%만이 퇴원시 BSE를 교육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BSE를 간호사가 교육하는 것과 나이, BSE 실천, 유방암에 대한 개인적인 위험요인과는 관련이 없었다. 간호사의 90.7%가 BSE에 대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망률을 낮추는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Heyman et al.²¹⁾은 내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02명을 대상으로 대조군 63명, 실험군 39명으로 나누어서 BSE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을 조사하고 실험군에게는 약 1시간 정도의 BSE 교육을 한 후 6주 후에 지식, 태도, 실천 그리고 환자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매달 규칙적으로 BSE를 하는 사람은 26%이었으며 BSE를 하지 않는 이유는 BSE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흔하였고 유방암에 걸릴 것 같지 않으므로, 습관이 아니므로, 잘하지 못해서 의사 검진 또는 유방촬영을 하므로, 너무 젊고 유방암 병력이 없으므로, 두려워서, 남편이 유방검진하므로, 귀찮아서, 느낌이 확실치 않아서의 순이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에게 BSE를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에게 BSE를 하는 것에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Heyman, et al.²¹⁾은 간호사에게 BSE를 교육하므로써 BSE 실천에 대한 인식, BSE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BSE 교육과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병원환경에서 BSE를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짧은 입원기간, 환자의 건강상태가 중환, 간호사의 부족, 적절한 정보부족 등이 방해요인으로 지적되었고 따라서 외래나 건강센터, 지역사회 검진프로그램에서 더욱 잘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8개의 종합병원의 일반병동과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2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연구 도구는 대상자의 제 특성 24문항(일반적 특성 6문항, 유방관련 특성 18문항),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29문항, 태도 17문항, 실천 14문항으로 총 84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지식측정도구는 최경옥⁶⁾이 개발한 도구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맞는 답에는 1점, 틀리거나, 잘모르겠다는 답은 0점을 주어 지식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9점까지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72 이다.

2)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태도측정도구는 김애리⁷⁾가 개발한 도구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런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않다" 2점, "전혀 그렇지않다" 1점을 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63이다.

3)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 측정도구

실천 측정도구는 정명옥⁸⁾이 개발한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각 문항별로 실천을 하면 1점, 실천을 하지 않으면 0점을 주어 실천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부터 최고 14점까지이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1 이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달간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병원의 간호부를 통해서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질문지 300부를 배부하고 28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95.6%였고 이중 부적절한 10부는 제외하고 총 277부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유방자가검진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 2)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인 특성 및 유방자가검진 관련특성에 따른 지

식, 태도, 실천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4)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이 부산시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군이 43.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결혼상태는 미혼군이 50.5%, 기혼군이 49.5%이었고, 교육정도는 3년제군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평간호사가 58.5%로 가장 많았고 수간호사 이상은 26.4%이었다. 근무경력은 5년 이하군이 39.3%, 16년 이상이 24.9%으로 5년 이하군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부서는 대상자의 51.3% 정도가 외과, 내과, 산부인과에 근무하였다(표1).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은 표 2와 같다.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이 32.5%, 하고 있지 않은 군이 67.5%로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을 위한 건강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방질환을 앓은 경험에서 응답자의 96.8%가 경험이 없었으며 유방암 가족력에서도 95.7%가 유방암 가족력이 없었으며, 유방암 환자를 간호한 경험에서 있다가 56.7%였고, 유방촬영을 한 경험에서는 89.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에게 유방검진을 받은 경험도 없는 경우가 90.3%로 이는 황복녀¹⁷⁾와 최경옥⁶⁾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유방암 조기 발견법으로 중요한 유방촬영술과 의사의 유방검진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7)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연령	29세 이하	119	43.0
	30-39세	95	34.3
	40-49세	53	19.1
	50세 이상	10	3.6
결혼상태	미혼	140	50.5
	기혼	137	49.5
교육정도	3년제	154	55.6
	4년제	88	31.8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	35	12.6
직위	평간호사	162	58.5
	주임간호사	42	15.2
	수간호사 이상	73	26.4
근무경력	5년 이하	106	39.3
	6-10년	56	20.2
	11-15년	46	16.6
	16년 이상	69	24.9
근무부서	외과	60	21.7
	내과	48	17.3
	산부인과	34	12.3
	소아과	30	10.8
	외래	6	2.2
	기타	99	35.7

표 2. 대상자의 유방 자가검진관련 특성 (N=277)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건강활동	한다	90	32.5
	안 한다	187	67.5
유방 질환경험	유	9	3.2
	무	268	96.8
가족 중 유방암 경험	유	12	4.3
	무	265	95.7
유방암 환자경험	유	157	56.7
	무	120	43.3
유방 촬영경험	유	29	10.5
	무	248	89.5
의사 검진경험	유	27	9.7
	무	250	90.3
BSE 들은 경험	유	263	94.9
	무	14	5.1
BSE 권유	유	113	40.8
	무	164	59.2
BSE 실천의지	많다	25	9.1
	보통	171	61.7
	적다	81	29.2

표 2 계속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BSE 배운 경험	있다	234	84.5
	없다	43	15.5
BSE 검진실천	한다	91	32.9
	안한다	186	67.1
지난 6개월동안 BSE 횟수	1-4회	182	65.7
	4-8회	16	5.8
	9-12회	2	0.7
	13회이상	3	1.1
	없다	74	26.7
BSE 지식 자신감	매우자신감이있다	4	1.4
	자신감이 있다	54	19.5
	보통이다	170	61.4
	자신감이 없다	35	12.6
	전혀자신감이없다	14	5.1
BSE로 유방암 발견 자신감	매우자신감이있다	3	1.1
	자신감이 있다	60	21.7
	보통이다	157	56.7
	자신감이 없다	48	17.3
	전혀자신감이없다	9	3.2
간호대상자	한다	42	15.2
BSE에 대해 질문	안 한다	235	84.8
간호력 내 BSE 항목	있다	14	5.1
	없다	263	94.9
병원에서 BSE	한다	50	18.1
검진교육	안 한다	227	81.9

BSE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에서 94.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 대부분이 유방자가검진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SE를 원하는 사람은 40.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있다면 권유에 대한 실천할 의도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이 6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최경옥⁶⁾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BSE에 대한 실천의도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SE를 배운 경험에서 84.5%가 경험이 있었으며 BSE 실시 항목에서는 67.1%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들 자신들을 위한 BSE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간의 검진횟수를 질문한 결과 1-4회가 65.7%로 가장 많았다. 유방자가검진 방법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서는 보통이라는 군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BSE로 몽우리 발견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보통이라는 군이 56.7%, 자신감이 없다는 군

이 17.3%로 대부분이 자신감이 보통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경옥⁶⁾과 황복녀¹⁷⁾의 연구에서 자신감이 없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감 증진을 위한 대책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 대상자에게 BSE에 관한 질문에서는 안한다는 군이 84.8%로 대부분 BSE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재 사용하는 간호력에도 BSE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자가 94.9%로 대상자에게 BSE에 관해 질문할 기회가 제공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 BSE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가 81.9%로 대부분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경옥⁶⁾의 연구에서 95.4%보다는 높았으나 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BSE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SE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BSE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와 귀찮아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잊어버려서가 24.9%, 바빠서와 새로운 습관이므로가 21.3%,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11.6%이었다(표3). 이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경옥⁶⁾의 연구와 보건소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황복녀¹⁷⁾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BSE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N=277)

이유	실수 (명)	백분율 (%)
자가검진 방법을 알지 못해서	21	7.6
자가검진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109	39.4
잊어버려서	69	24.9
유방이 너무 작아서	7	2.5
비정상을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14	5.0
의사에게 검진 받으므로	4	1.4
1년에 한번 유방촬영을 하므로	2	0.7
귀찮아서	109	39.4
검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8	2.9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3	1.1
바빠서	59	21.3
일상활동으로도 발견되므로	9	3.2
비정상을 발견할 자신이 없어서	17	6.1
검진방법이 어려워서	6	2.2
새로운 습관이므로	59	21.3
부끄러워서	16	5.8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32	11.6

3.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정도, 실천 정도

1)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29점 만점에 평균 22.94 ± 3.87 로 비교적 높았다(표 4). 이는 최경옥⁶⁾의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18.1점, 일반여성 대상의 연구보다 높았으며 황복녀¹⁷⁾의 연구결과 7.4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간호사들의 BSE에 대한 지식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정도 (N=277)

구 분	문항수	최도의 최소치- 최대치	평균점	표준 편차
지 식	29	0-29	22.94	0.39

항목별 분석은 다음과 같았다.

유방암이 잘 생기는 연령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8%가 40-59세라고 대답하였고, 24.5%가 30-39세, 4.0%가 20-29세, 0.7%가 60세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BSE 시기는 응답자의 83.8%가 월경 끝난 후 1주일 이내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월경 시작 전이 9.7%, 아무때나가 4.0%, 월경기간이 2.5%로 응답하였다. 유방자가검진은 한달에 한번에 65.3%가 응답하였고 6개월에 한번이 18.8%, 3개월에 한번과 일주일에 한번이 5.1%, 두달에 한번이 4.0%, 1년에 한번이 1.8%이었다.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에 관한 지식정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유방암은 조기발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99.3%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검사는 BSE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91.3%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니까? 라는 질문에 79.4%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방피부나 젖꼭지에 움푹 파이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1.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집니까? 라는 질문에 88.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방 내에 종괴가 움직일 때는 양성이지만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라는 질문에 63.9%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방 내에서 아프면서 움직이지 않는 종괴는 악성입니까? 라는 질문에

49.5%가 그렇다고 답하여 정답율이 50.5%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방피부에 굴껍질 같은 양상이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에 62.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방에 발견되는 몽우리는 거의 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었다.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관한 지식정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유방의 전체 모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본다는 질문에 96.8%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피부나 젖꼭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본다는 질문에 96.4%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양팔을 옆으로 내리고 본다는 질문에 56.0%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양팔을 머리위로 올리고 본다는 질문에 95.3%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양손을 허리에 대고 본다는 질문에 68.2%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양측 유방을 비교해 본다는 질문에 98.6%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검진하려는 유방 쪽의 어깨 밑에 작은 베개를 놓는다는 질문에 74.7%가 올바르게 답하였다. 촉진하려는 유방의 반대편의 팔을 머리 밑에 놓는다는 질문에 36.1%만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답하여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었다. 이는 최경옥⁶⁾ 연구에서 51.4%라고 답한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으로 촉진시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방과 겨드랑이 사이의 부위에서 시작한다는 질문에 78.0%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유방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들어간다라는 질문에 84.8%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왼쪽 유방을 만질 때는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질문에 86.3%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작은 원을 그리듯 돌리면서 만진다는 질문에 88.8%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검지를 포함한 손가락 3개를 사용한다는 질문에 80.9%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비정상적인 몽우리를 느낄 수 있도록 누르는 깊이로 달리하면서 깊게도 만지고 얇게도 만진다는 질문에 86.3%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젖꼭지를 부드럽게 째한다는 질문에 80.9%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유방전체를 만진다는 질문에 82.3%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BSE 시간이 10-15분 정도 소요된다는 질문에 87.0%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최경옥⁶⁾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는 일치되나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 결과보다는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정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44 ± 0.31 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5). 이는 최경옥⁶⁾의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1.7점(3점 만점), 일반여성 대상의 연구보다 높았으며, 황복녀¹⁷⁾의 연구결과 7.3점(12점 만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간호사들의 BSE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 정도 (N=277)

구 분	문항수	척도의 최소치- 최대치	평균평점	표준 편차
태 도	17	1-5	3.44	0.31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유방암 자가검진 방법은 여성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평점이 4.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방암 자가검진은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평점은 4.49점,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수록 완치율이 높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평점은 4.35점, 유방암 자가검진의 방법은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평점은 4.26점으로 간호사의 대부분이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게 나왔다.

3)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정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정도는 총 14점 만점에 7.25 ± 4.62 정도로 보통 수준이었다(표6). 이는 최경옥⁶⁾의 간호사 대상 연구의 5.7점(20점 만점)과 일반인 대상 (1994)의 4.01(20 만점)보다 높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지만 Clarke, Sandler²⁰⁾의 82% 수준보다는 훨씬 낮아 앞으로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 정도 (N=277)

구 분	문항수	척도의 최소치- 최대치	평 균	표준 편차
실 천	14	0-14	7.25	4.62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팔을 머리 뒤로 얹은 상태에서 거울을 본다가 응답자의 65.3 %로 가장 많았고 3개의 손가락을 한데 모아서 유방을 만진다, 동전 만한 크기의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만진다고 손가락 끝마디 편평한 부위를 사용한다고 각각 60.6%이었고 젖꼭지를 짜 본다가 58.5%이었다. 의외로 유방을 촉진하여 검진한다는 32.5%가 시행한다에 응답하였고 67.1%가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항목별 실천율은 "팔을 머리 뒤로 얹은 상태에서 거울을 본다"가 65.3%로 가장 실천율이 높았으며 "손가락 끝을 이용한다" 60.6%,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만진다" 60.6%, "3개의 손가락을 한데 모아서 만진다" 60.6%로 다음을 차지했고 가장 실천율이 낮은 항목은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거울을 본다" 32.5%, "유방촉진을 직선방향, 바깥살 모양, 원모양 중 하나를 택하여 실시한다"가 32.5%였다. 이에 실천율이 낮은 항목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실천정도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7 과 같았다. 교육정도는 3년제군(22.22점), 4년제군(24.05점),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군(23.37점)의 세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6.752, p=0.001$) 4년제군의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

Patistea et al.²²⁾의 교육정도와 지식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되는 것으로 교육정도가 지식에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7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3.32, p=0.038$). 이는 최경옥⁶⁾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실천점수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유방암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실천 정도

(N=277)

일반적 특성	변수	지식				태도				실천			
		평균	표준 편차	F or t값	p값	평균	표준 편차	F or t값	p값	평균	표준 편차	F or t값	p값
연령	29세 이하	22.94	3.55	1.518	.210	58.24	5.80	.805	.492	44.03	6.20	2.734	.044*
	30 ~ 39세	22.51	4.27			58.36	5.44			42.39	5.24		
	40 ~ 49세	23.87	3.73			59.46	3.87			41.85	4.73		
	50세 이상	22.30	3.77			59.44	2.53			41.40	5.10		
결혼 상태	미혼	22.94	3.94	-.044	.965	58.36	5.59	-.622	.534	6.54	4.68	-2.598	.010**
	기혼	22.96	3.80			58.75	4.96			7.97	4.46		
교육 정도	3년제	22.22	3.97	6.752	.001***1	58.73	4.79	.229	.796	58.33	5.27	2.132	.121
	4년제	24.05	3.00			58.40	5.51			56.80	5.95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23.37	4.65			58.15	6.62			57.00	8.29		
직위	평간호사	22.85	3.87	.737	.479	59.11 58.25	5.51	.660	.518	57.17	5.95	1.495	.226
	주임 간호사	22.55	3.62				5.92			58.67	7.61		
	수간호사 이상	23.38	4.00			58.91	4.25			58.23	4.75		
근무 경력	5년 이하	22.98	3.59	.536	.658	58.05	5.91	1.512	.212	57.03	6.32	1.324	.267
	6 ~ 10년	22.66	3.65			58.75	4.92			57.80	6.04		
	11 ~ 15년	22.57	5.22			57.91	5.68			57.30	6.38		
	16년 이상	23.38	3.41			59.61	3.98			58.81	4.89		
근무 부서	외과	23.13	3.86	1.702	.134	58.14	5.08	.286	.921	57.58	4.70	.825	.533
	내과	22.10	3.44			58.32	6.08			56.04	4.88		
	산부인과	24.44	4.05			59.37	4.46			57.53	4.50		
	소아과	22.60	3.49			58.80	7.05			57.33	4.74		
	외래	24.00	2.45			57.88	6.88			58.33	4.89		
	기타	22.77	4.09			58.61	4.54			57.43	4.47		
p<0.05	p<0.01	p<0.001											

준다. 또한 결혼상태에서는 기혼군(7.94점)이 미혼군(6.54점)보다 실천점수가 높았다($t=-2.594$, $p=0.010$). 이는 최경옥⁶⁾의 연구에서도 실천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혼에게도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실천정도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건강을 위한 활동 유무는 한다는 군(23.70점)이 안한다는 군(22.58점)보다 지식 점수가 높았다($t=2.269$, $p=0.024$). 또한 유방자가검진을 원하는 사람 유무, 유방자가검진의 실천여부, 지난 6개월 동안 유방자가검진을

받은 횟수,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대한 자신감, 유방자가검진으로 몽우리 발견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내었다. 주위에서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군(23.96점)이 없는 군(22.24점)보다 지식 점수가 높았고($t=3.725$, $p=0.000$), 유방자가검진을 실천하고 있는 군(24.07점)이 하지 않는 군(22.39점)보다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t=3.434$, $p=0.001$), 지난 6개월 동안 유방자가검진을 받은 횟수는 1-4회군(23.53점), 5-8회군(24.38점), 9-12회군(25.00점), 13회이상군(24.33점), 한번도 안한 군(21.08점)의 다섯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6.641$, $p=0.000$) 9-12회 검진한 군에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자신감이 있다는 군(24.50점), 자신감이 있다는 군(24.52점), 보통이라는 군(22.93점), 자신감이 없다는 군(20.80점), 전혀 자신감이 없다는 군(22.00점)의

표 8. 대상자의 유방 자가 검진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실천 정도

(N=277)

유방자가검진 관련 특성	변수	지식				태도				실천			
		평균	표준 편차	F or t값	p값	평균	표준 편차	F or t값	p값	평균	표준 편차	F or t값	p값
건강활동	한다	23.70	3.63	2.269	.024	58.24	5.63	-.700	.485	8.23	4.45	2.481	.014
	안한다	22.58	3.93			58.71	5.09			6.77	4.64		
질환 경험	있다	22.44	3.68	-.395	.693	58.64	3.26	.049	.961	8.00	3.94	.494	.622
	없다	22.96	3.88			58.55	5.33			7.22	4.65		
가족중 암발병	있다	22.75	6.40	-.179	.858	57.77	6.18	-.528	.598	7.00	5.01	-.191	.849
	없다	22.95	3.73			58.59	5.23			7.26	4.61		
암환자	있다	23.30	3.87	1.747	.082	58.87	5.26	1.143	.254	7.47	4.49	.919	.359
	없다	22.48	3.82			58.14	5.26			6.96	4.79		
유방촬영술 경험	있다	22.59	3.62	-.529	.597	58.82	4.15	.293	.796	9.03	3.32	2.213	.028
	없다	22.99	3.90			58.52	5.39			7.04	4.71		
의사 검진 경험	있다	22.15	3.90	-1.129	.260	58.80	4.80	.253	.800	9.15	3.23	2.263	.024
	없다	23.03	3.90			58.53	5.32			7.04	4.71		
들은 경험	있다	22.97	3.86	.442	.659	58.57	5.21	.141	.888	7.33	4.57	1.246	.214
	없다	22.50	4.09			58.36	6.50			5.69	5.65		
검진 권유	있다	23.96	3.27	3.725	.000	58.88	5.53	.846	.398	8.36	4.22	3.393	.001
	없다	22.24	4.09			58.33	5.08			6.48	4.75		
실천 의지	많다	23.72	3.54	553	.576	58.26	4.26	.950	.388	9.84	3.95	10.467	.000
	보통	22.85	3.97			58.89	5.57			7.66	4.53		
	적다	22.90	3.75			57.94	4.86			5.59	4.49		
	없다	21.08	4.20			57.83	5.44			4.54	4.91		
검진 배움	있다	23.14	3.92	1.927	.055	58.73	5.08	1.293	.197	7.50	4.50	2.134	.034
	없다	21.90	3.44			57.60	6.15			5.86	5.09		
검진 실천	한다	24.07	3.46	3.434	.001	58.85	4.54	.714	.476	10.08	2.99	7.800	.000
	안한다	22.39	3.95			58.37	5.57			5.88	4.66		
검진 횟수	1-4회	23.53	3.57	6.641	.000***	58.91	5.14	2.158	.074	7.86	4.12	13.932	.000
	5-8회	24.38	2.94			56.75	5.57			11.56	1.79		
	9-12회	25.00	1.41			66.32	1.29			12.00	1.41		
	13회 이상	24.33	3.79			59.04	2.59			11.33	3.06		
	없다	21.08	4.20			57.83	5.44			4.54	4.91		
	없다	21.08	4.20			57.83	5.44			4.54	4.91		
BSE 자신감	매우 자신있다	24.50	3.42	5.661	.000	60.46	6.95	2.077	.084	9.75	4.19	5.350	.000
	자신있다	24.52	2.89			59.19	5.54			9.36	3.81		
	보통이다	22.93	3.92			58.86	5.14			7.04	4.58		
	자신없다	20.80	4.26			56.65	3.80			5.20	4.77		
	전혀 자신없다	22.00	3.06			56.69	7.32			6.21	4.92		
발견 능력 자신감	매우 자신있다	25.33	2.08	7.684	.000	58.88	3.06	2.351	.049	9.00	7.81	7.204	.000
	자신있다	24.38	2.84			58.84	5.68			9.15	3.71		
	보통이다	23.11	3.61			59.12	4.90			7.38	4.48		
	자신없다	21.10	4.35			56.61	5.36			4.71	4.68		
	전혀 자신없다	19.44	6.19			57.08	6.87			5.44	5.32		
검진 질문	한다	23.71	3.90	1.401	.162	59.63	4.63	1.442	.150	9.32	3.93	3.153	.011
	안한다	22.80	3.85			58.36	5.36			6.89	4.65		
검진 항목	있다	23.26	3.17	.337	.736	56.63	3.40	-1.406	.161	8.64	4.33	1.158	.248
	없다	22.93	3.90			58.66	5.33			7.18	4.63		
검진 교육	한다	23.54	3.07	1.202	.231	58.27	5.32	-.417	.677	8.16	4.20	1.542	.124
	안한다	22.82	4.01			58.62	5.27			7.05	4.70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5.661$, $p=0.000$) 자신감이 있다는 군에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 유방자가검진으로 몽우리 발견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자신감이 있다는 군(25.33 점), 자신감이 있다는 군(24.38 점),

보통이라는 군(23.11 점), 자신감이 없다는 군(21.10 점), 전혀 자신감이 없다는 군(19.44 점)의 다섯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684$, $p=0.000$) 매우 자신감이 있다는 군에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8>과 같았다.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 17문항 중 유방자가검진 태도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8>과 같았다. 특성 문항 17문항 중 건강을 위한 활동 유무, 유방촬영 경험 유무, 의사에게 유방검진을 받은 경험 유무, 유방자가검진을 배운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건강을 위한 활동 유무는 한다는 군(8.23점)이 안한다는 군(6.77점)보다 실천 점수가 높았고($t=2.481$, $p=0.014$), 유방촬영 경험 유무는 유방촬영을 한 경험이 있는 군(9.03점)이 없는 군(7.04점)보다 실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t=2.213$, $p=0.028$), 의사에게 유방검진을 받은 경험 유무는 경험이 있는 군(9.15점)이 없는 군(7.04점)보다 실천 점수가 높게 나왔고($t=2.263$, $p=0.024$), 유방자가검진을 배운 경험 유무는 경험이 있는 군(7.50점)이 없는 군(5.86점)보다 실천 점수가 높게 나왔다($t=2.134$, $p=0.034$).

또한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의 유무, 주위에서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것에 대한 실천의지 정도, 지난 6개월 동안 유방자가검진을 받은 횟수,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대한 자신감, 유방자가검진으로 몽우리 발견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내었다. 주위에서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군(8.36점)이 없는 군(6.48점)보다 실천 점수가 높았고($t=3.393$, $p=0.001$), 주위에서 유방자가검진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실천 의지 정도는 많다군(9.84점), 보통이다군(7.66점), 적다군(5.59점)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0.467$, $p=0.000$) 실천의지 정도가 많다 군에서 실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최경옥⁶⁾의 연구와 Shepperd et. al¹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주위의 지지체계가 실천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유방자가검진을 받은 횟수는 1-4회군(7.86점), 5-8회군(11.56점), 9-12회군(12.00점), 13회이상군(11.33점), 한번도 안한 군(4.54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3.932$, $p=0.000$) 9-12회 검진한 군에서 실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대

한 자신감은 매우 자신감이 있다는 군(9.75점), 자신감이 있다는 군(9.36점), 보통이라는 군(7.04점), 자신감이 없다는 군(5.20점), 전혀 자신감이 없다는 군(6.21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5.350$, $p=0.000$) 매우 자신감이 있다는 군에서 실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유방자가검진으로 몽우리 발견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자신감이 있다는 군(9.00점), 자신감이 있다는 군(9.15점), 보통이라는 군(7.38점), 자신감이 없다는 군(4.71점), 전혀 자신감이 없다는 군(5.44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204$, $p=0.000$) 자신감이 있다는 군에서 실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최경옥⁶⁾의 연구와 Celentano, D. & Holtzman²³⁾의 연구에서 자신감이 유방자가검진 실천의 중요 예측요인임을 밝힌 결과들과 일치되는 것으로 유방자가검진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실천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8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달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최경옥⁶⁾의 28문항으로, 태도 측정도구는 김애리⁷⁾의 17문항으로, 실천측정도구는 정명옥⁸⁾의 14문항을 사용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지식 측정도구는 Cronbach's α 0.72, 태도 측정도구는 Cronbach's α 0.63, 실천 측정도구는 Cronbach's α 0.91 이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실천정도는 t-test, ANOVA로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29세 이하의 젊은 연령이 가장 많았고 3년제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5년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평간호사가 58.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51.3% 정도가 외과, 내과,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였다.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67.5%가 하지 않고 있었고, 89.5%가 유방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90.3%가 의사에게 유방검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유방자가검진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8%였고 실천하려는 의지도 91.9%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유방자가검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검진에 대해 배운 경험은 84.5%가 있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67.1%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자가검진 교육자로서 문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질문을 84.8%가 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력에 검진항목도 94.9%가 포함하지 않았고 병원에서의 유방자가검진교육도 81.9%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자가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39.4%, 귀찮아서가 39.4%, 잊어버려서가 24.9%, 바빠서 21.3%, 새로운 습관이므로가 21.3%로 나타났다.

3.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29점 만점에 평균 22.94 ± 3.87 로 비교적 높았다. 항목별로 보면 정답율이 발생연령에서 70.8%, 검진시기가 83.8%, 검진기간이 65.3%로 높았다. 하지만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에서는 정답율이 대부분 70.0%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으나 종괴의 고정과 관련된 문항에서 27.8%로 낮게 나타났다. 유방자가검진 방법에서는 정답을 대부분 80.0% 이상이었으나 "촉진하려는 유방의 반대편의 팔을 머리 밑에 놓는다"라는 문항은 48.4%로 나타나 다른 지식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44 ± 0.31 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방자가검진이 여성에게 유익한 것"(4.51),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하다"(4.49), "유방암 조기발견에 중요하며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4.26) 항목에 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실천정도는 총 14점 만점에 7.25 ± 4.62 정도로 보통 수준이었다.

항목별 실천율은 "팔을 머리 뒤로 얹은 상태에서 거울을 본다"가 65.3%로 가장 실천율이 높았으며 "손가락 끝을 이용한다" 60.6%,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만진다" 60.6%, "3개의 손가락을 한데 모아서 만진다" 60.6%로 다음을 차지했고 가장 실천율이 낮은 항목은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거울을 본다" 32.5%, "유방촉진을 직선방향, 바깥살 모양, 원모양 중 하나를 택하여 실시한다" 32.5%였다.

4. 일반적 특성별에 따른 지식정도는 교육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6.752$, $p=0.001$) 4년제 군에서 가장 높았다(24.05 점). 태도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천정도에서는 연령($F=2.734$, $p=0.044$) 과 결혼상태($t=-2.598$, $p=0.01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젊은 경우, 기혼인 경우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5.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는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t=2.269$, $p=0.024$),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t=3.725$, $p=0.000$), 유방자가검진을 실천하는 경우($t=3.434$, $p=0.000$), 지난 6개월 동안 유방자가검진을 많이 실천한 경우($F=6.641$, $p=0.000$), 유방자가검진에 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우($F=5.661$, $p=0.000$), 유방자가검진으로 몽우리를 발견할 자신감이 높은 경우($F=7.684$, $p=0.000$) 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태도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천정도에서는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t=2.481$, $p=0.014$), 유방촬영 경험이 있는 경우($t=2.213$, $p=0.028$), 의사에게 유방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t=2.263$, $p=0.024$),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t=3.393$, $p=0.001$), 주위에서의 권유에 대한 실천의지가 높은 경우($F=10.467$, $p=0.000$), 유방자가검진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t=2.134$, $p=0.000$), 지난 6개월동안 유방자가검진을 많이 실천한 경우($F=13.932$, $p=0.000$), 유방자가검진에 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우($F=5.350$, $p=0.000$), 유방자가검진으로 멍우리를 발견할 자신감이 높은 경우($F=7.204$, $p=0.000$), 검진에 대한 질문($t=3.153$, $p=0.011$)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간호사들은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높은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비해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과 관련 있는 제 요인들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교육에서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사를 위한 체계적인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내용을 간호력에 포함시켜 임상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한국 유방암학회, 1998년 한국인 유방암의 전국적인 조사자료분석, 한국 유방암학회지 2(2), 111-127.
2. 류근원, 류진우, 김종식, 구범환: 한국여성의 유방증상. 외과학회지 46(1), 44-55, 1994
3. Demeaco, C.: Breast cancer screening : Is it effective?. Health Naturally, March/April 10-11, 25, 1993
4. 최연화: 일 지역 여성의 유방자가검진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1), 89-101, 1997
5. McLendon, M. S., Fulk, C. H., and Starne, D. C.: Effectiveness of breast self-examination teaching to women of low socioeconomic class. Journal of Obstetrics,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1, 7-10, 1982
6. 최경옥: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6(1), 81-100, 1994
7. 김애리: Video program을 이용한 간호정보 제공이 성인 여성의 유방자가검진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6(1), 112-124, 1994
8. 정명옥: 유방자가검진을 위한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9. Kenny E., Hovell M. F., Mewborn C. R., Dockter B., Chin L.: Breast self-examination :The effects of prescribed frequency on adherence, accuracy, and detection abil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 140-145, 1988
10. Grady K. E.: Cue enhancement and the long-term practice of breast self-examinatio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7, 191-204, 1984
11. Mayer J. A., Solomon L. J.: Breast self-examination skill and frequency. A review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14(3), 189-196, 1992
12. Lauver D.: Instructional information and breast self examination practic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2, 11-19, 1989
13. Shepperd S. L., Atkins E., Frankowski B., Solomon L. J., and Foster R. S.: Determinants of breast self-examination Among women of lower income and lower educatio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3(4), 359-371, 1990
14. Hailey, B. J., Bradford, A. C.: Breast self-examination and Mammography among university staff and faculty. Women & Health 17(3), 59-77, 1991
15. Enterkin, N. M. & Mcmillian, S. C. Nurses's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cancer prevention and detection, Cancer Nursing 16(6), 431-439, 1993.
16. Ludwick, R.: Registered nurses' knowledge and practices of teaching and performing breast examinations among elderly women Cancer Nursing 15(1), 61-67, 1992
17. 황복녀: 보건소 간호원들의 유암 조기발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2
18. Haughey, B. P., Mashall, J. R., Mettin, C., Nemoto, T., Krolart, K., Swanson, M.: Nurse's ability to detect nodules in silicone breast models, Oncology nursing Forum 11(1), 37-42, 1984
19. Sawyer, P. F.: Breast self-examination :Hospital based nurses aren't assessing their clients. Oncology nursing forum 13(5), 44-48, 1986
20. Clarke, D. E., Sandler, L. S.: Factors involved in nurses' teaching breast self-examination. Cancer Nursing 12(1), 41-46, 1989
21. Heyman, E. L., Tyner, R., Phipps, C. Cave, L., Owen, D. C.: Is the hospital setting the place for teaching breast self examination?, Cancer Nursing 14(1), 35-40, 1991
22. Patistea, E., Chliaoutakis, J., Darvin, C., Tsenka, A.: Breast self-examination :Knowledge and behavior of greek female health care professionals working in primary health care centers. Cancer Nursing 15(6), 415-421, 1992
23. Celentano, D. & Holtzman, D.: Breast self examination competency :An analysis of self-reported practice and associated characteristics. AJP 73(11), 1321-1323, 1983